이베로아메리카 제11권 2호 [2009. 12] : 91~128

고전기 마야의 도시 형태와 사회 변동에 관한 연구

김 우 중*
(Kim, Woo-Joong)

<Abstract>

La Transformación Vrbana del Período Clásico Maya y su Cambio Sociocultural

Este trabajo se ha realizado con la finalidad de observar cómo era la forma de la vivienda y el aspecto residencial en grupo de los mayas para analizar su estructura de reproducción social y para inducir su transformación social por medio de la 'teoría de comunidad'. Asimismo se trata de las razones por las cuales estos elementos se han modificado según el cambio del movimiento social. El estilo de las viviendas y de las comunidades de los mayas se cambió en gran escala entrando en el siglo VII, fines del período clásico. Por el crecimiento de su población y de la clase noble, se necesitaban el aumento de producción alimenticia y la agricultura de plano inclinado. Es decir, se había mantenido la estructura de reproducción limitada. En casi todas las comunidades de los mayas, sufrieron de daños ocasionados por larga sequía, ya no pudieron disfrutar de la estabilidad social y surgieron conflictos entre ellas. Para tomar contramedida a esta circunstancia, cada ciudad maya

*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스페인어과
E-mail: latin@nate.com

tuvo que modificar su función para ponerse a la defensiva. Pero estos conflictos se desarrollaron en guerra de saqueo (en Aguateca y Cancuén se puede ver su prueba) por el alimento a medida que la sequía continuaba sin cesar. Por esta razón, varios centros comerciales y pueblos de los mayas se han destruido o abandonado poco a poco resultando en llegar al fin de su período clásico.

[Key Words: Yucatán/ Petén/ Período Clásico Maya/ Copán/ Joya de Cerén/ Aguacate/ Dos Pilas/ Yaxchilan/ Cancuén/ Calakmul/ Tikal/ Piedras Negras/ Cambio social/ Estilo de Vivienda]
[주제어: 유까딴/ 뻬뗀/ 고전기 마야/ 꼬빤/ 호야 데 세렌/ 아구아까떼/ 도스 삘라스/ 야스칠란/깐꾸엔/ 깔락물/ 띠깔/ 삐에드라스 네그라스/ 사회 변동/ 주거 양식/

Ⅰ. 들어가는 글

통상적으로 특정 집단의 주거 양태 및 집거(集居) 형태는 그 사회에서의 해당 집단의 계층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주택의 형태, 공간의 이용 방식 및 집거 형태의 유형은 생산 단위의 구성이나 생산 수단의 소유 및 분배, 그리고 사회의 계층간 분화 및 직업군의 분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착안하여 마야 문화를 선고전기(先古典期), 고전기(古典期), 후고전기(後古典期)로 구분하고, 주거 및 도시 형태의 변화를 살펴보려 한다. 마야 건축에 관한 이제까지의 연구들은 신전이나 궁실, 기념물의 건축을 유형화하여 살

펴보는 시도가 많았는데, 본 논문은 실제 생산력을 감당하였던 생산자 계층, 즉 일반 평민들의 주거 및 집거 형태와 그 변동 까지 살펴봄으로써 당 문화권의 변화상을 추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서 본고에서는 <그림-1>에서 보여 지는 마야 문명의 고지대(Highland), 남부 저지대(Southern Lowlands), 그리고 북부 저지대(Northern Lowlands)에서 나타났던 집거 유형과 주거의 형태를 살펴보고, 동 사회에 특정한 변동 요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에 적응했는지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마야 도시국가의 개괄.
(John S. Henderson (1997) p.34. Map3. The Maya World 에서 전재)

선행 마야 연구를 보면 대체로 믾은 연구자들이 마야 문명은 우수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선입견을 갖고 그것을 전제로 자기 학설을 풀어나가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천문학 등에서 매우 우수했다는 견해를 피력하면서, 마야 사회가 3세기에 한번, 5-6세기에 한번, 10세기

에 한번, 그리고 16세기에 스페인인이 침입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순환적 정체 과정을 겪고 있었고 자력으로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같은 것은 외면하거나 간과하는 것이었다. 요컨대 주기적인 순환은 동 사회의 사회적 재생산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하는 사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사는 반드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발전론적 시각이 갖는 문제점과 사회과학의 분석틀에 대한 선입견이다. 본 논문은 논리 전개에 있어 발전론적 시각을 가급적 배제하려 한다. 분석 대상 시기인 선고전기, 고전기, 후고전기의 시기별로, 특히 고전기를 중심으로 하여 마야 사회의 주거 형태, 집거 양식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살펴보고, 그것이 사회 변동 요인에 어떻게 대응하여 나갔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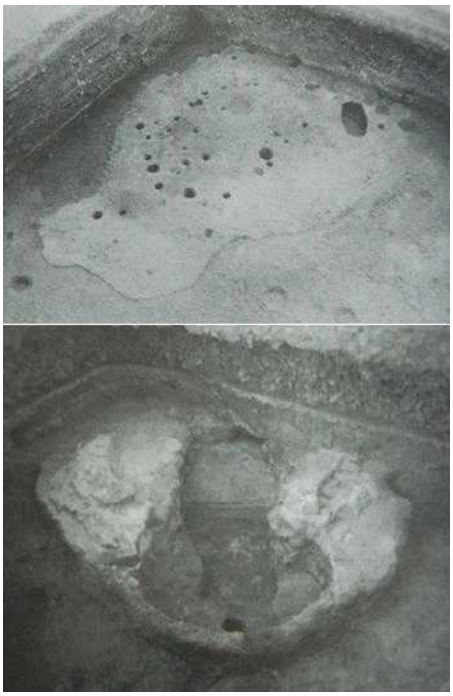
본 논문에서 사례로 든 18개 마야 유적지 중 Calakmul, Becán, Joya de Cerén, Toniná, Comalcalco 등 12개 지점은 필자가 1996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10여년간 총 7차례에 걸쳐 답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술한 것이고, 개인적 방문이 어렵거나 아직 가보지 못한 Piedras Negras, Dos Pilas, El Perú, Cancuén, Aguacate, Naranjo 등 6개 지점은 인터넷 사이트 및 참고 문헌에 있는 자료를 인용하여 비교 전개한 것이다.

Ⅱ. 마야의 주거 및 도시 형태와 그 변화

1. 마야의 주거 및 도시 형태 개괄

마야 사회에 정주형 농경이 시작된 이래, 선고전기에 이르면 초기형 가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초기형 가옥은 중앙에 작은 광장을 두고 원

형으로 가옥을 배치하는 형태로 이루어 졌던 것 같다.[1] 이러한 가옥 배치는 중첩되어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군거 집단의 크기는 통상 50~100인 규모였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2>는 벨리즈(Belize)의 꾸에요(Cuello)에 있는 마야의 중기 선고전기 주거 유적이다.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당시의 가옥은 기둥을 세운 움막형의 간헐 주거였던 것 같다. 처음에는 기둥을 세운 뒤 그 사이를 나뭇가지 등으로 막았으나, 후에는 격자형 틀을 만든 뒤 이를 흙벽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보인다. 가옥의 내부에는 중앙에 화로의 흔적이 있고[2] 주변에 식량 저장을 위한 구덩이를 두었다. 식량 구덩이는 선조의 무덤 기능을 겸하였는데[3] 이렇게 가옥의 하부에 조상의 무덤을 두는 것은 메소아메



<그림-2> 선고전기의 마야 주거 유적(위)과 목욕탕(Sweathouse) 유적.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 (2006) p.202 Fig.5.11

1) 물론 후대의 삐뗀이나 유까딴 반도 지역에서는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사면 배치형 건물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2) 마야세계에서는 화로를 구성하는 세 개의 돌을 생명의 돌로 신성시하여 오리온 성좌의 세별로 상징하였다.
3) <그림-3>의 오른쪽 아래를 보면 무덤 구덩이가 보인다. 오래 정주하게 된 이후에는 선조의 시신이 계속 묻혀 계층을 이루게 된다. 후대에 이르러 건물이 증축될

리카 특유의 조상 숭배 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영향은 사회 계층의 분화가 발생한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꼬빤(Copán)의 경우 공동 묘지에 가옥군이 건설되어 있었고, 귀족 가옥과 평민 가옥 모두의 지하에 선조의 시신이 묻혀 있었던 사실도 이를 반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향은 더욱 확장되어 마야 지역의 피라미드 밑이나 신전의 밑에 시신을 묻는 예는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마야 지역 뿐만 아니라 아스떼까나 잉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4)]

또 하나의 특징은 정화를 위한 목욕조의 존재다. 마야 사회는 조상 숭배 못지않게 신앙과 천신, 또는 태양신 숭배의 신앙이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제의(祭儀)에 참가키 위한 정화 의식의 일환으로 목욕이나 증기탕을 이용하였다. 이는 각 가구의 가옥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해당 지역의 중심 건물에 있었다. 자급자족형 농경민인 마야인은 농업 생산성이 취약하여 인구 급양 비율이 50%에 불과하였는데[5)], 이는 농민 1명의 급양 가능한 인구가 자신을 포함하여 2인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된다. 보다 후대인 후고전기 말기에 이르러서 다소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농업 생산력의 현저한 상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6)] 따라서 농업 인구 1인당 급양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마야 사회에서는 전 인구의 70%가 농업 인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후대에 와서 64가(家)의 기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64가지의 직업군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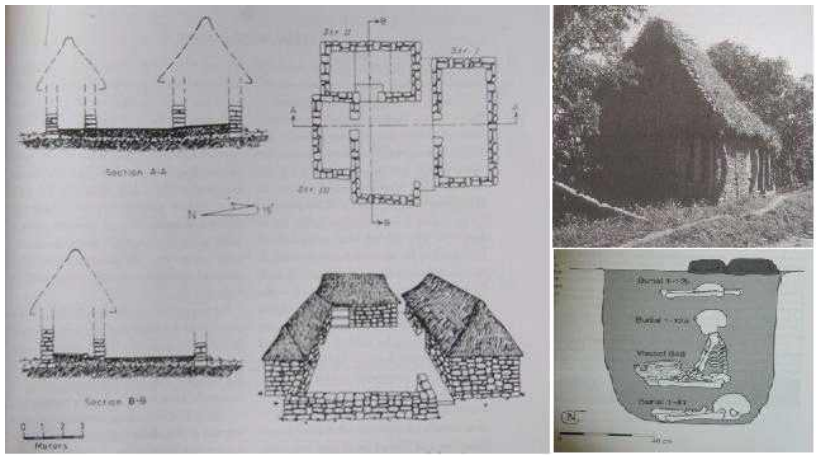
때마다 조상의 시신을 묻었는데 기원의 의미로 이장해 오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4) 띠깔의 1호 신전 밑에는 아하우왕의 시신이 묻혀 있고, 빨렝께의 비명의 신전(碑銘의 神殿) 지하에는 빠깔 2세, 그리고 깔락물의 궁전의 지하에서도 인골이 발견되고 있음은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5) 이집트 고왕조의 경우에는 농부 1인이 5명을 급양했고, 현대의 미국은 인구의 2%가 농부인데 농부1인은 125명을 급양할 수 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 (2009) P.232 참조.

6) 마야의 주농경 작목이라 알려진 옥수수는 밀, 보리보다 저단백 작목이며 마야의 저지대에서 1년 이상 보관이 불가능하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분화가 가속되기는 하였지만 당연히 마야인은 대부분 농부였고 이들은 주변부 농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기타 특별한 직업군들인 수공업자, 상인 등은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도시 중심부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3> 왼쪽의 사진은 깜뻬체에 있는 쉬뿌힐의 마야 주거로서, 완전한 정주형 주택의 한 예이다.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 (2006) p.679에서 전재. 오른쪽 위 사진은 마야의 변방인 온두라스 울루아강 유역의 반 이동식 주거. John S. Henderson (1997) p.34에서 전재. 오른쪽 아래 사진은 주거 내에 있는 조상의 무덤.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 (2006) p.205에서 발췌.

<그림-3>은 완전한 정주형 주택의 한 예이다. 깜뻬체(Campeche)에 있는 쉬뿌힐(Xpuhil)의 마야 주거로서, 대지위에 석축으로 쌓은 담이 있고, 그 위로 이엉을 엮어 얹은 초가지붕이 있는데, 마야 도시 중심부에 있는 주거 형태는 대부분 이를 따랐다. 실제로 초기 고전기의 깔락물(Calakmul)의 경우에도 도시 중심부에 이러한 석축 벽면을 가진 주거 구조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옥은 창이 없어 어두웠고, 문조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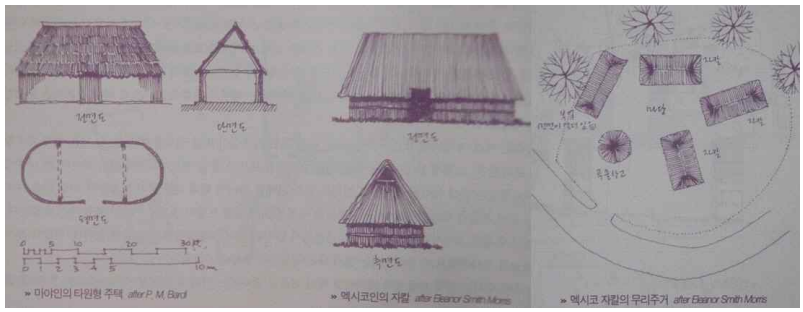
없었으나 각 가옥의 시선은 교묘하게 어긋나 있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보장되고 있다. 오른쪽 위 사진은 남부 저지대의 반 이동식 주거이다. 석축으로 쌓은 벽 대신 옥수수 줄기 등 초본 격자에 흙을 짓이겨 바른 벽이 특징으로 지붕은 이엉을 엮어 얹은 초가의 형태이다.

농민의 주거가 귀족이나 군인, 수공업자 등 기타 직군과는 달리 벽면을 나뭇가지에 흙을 개어 바르는 반영구 주택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이들의 농경 방식과 관련이 있다. 화전 경작인 밀파(Milpa)농경이 주된 생산 방식이었던 마야 사회에서는 농지의 생산력이 저하하면 주거를 이전하여야 했다.[7] 대개의 마야 농경은 다음과 같았다. 11월에 우기가 끝나면 경지 확보를 위한 벌목 및 정지 작업에 들어가고 이듬해 4월경 소작(燒作)한 후 번토(飜土)하여 거름을 삼고, 우기에 들어가면 옥수수, 콩, 호박을 심어 경작을 시작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일년에 2번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농부들은 처음에는 축신 마을과 연계를 유지하였으나 새로운 경지에서 새로운 마을 공동체가 확립되면 그곳에 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농 집단의 규모는 가변성이 컸다. 최초로 화전 개간을 시작할 때는 규모가 큰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일단 개간이 끝나 영농에 돌입한 뒤나 혹은 더 이상 개간할 땅이 없는 경우, 또는 화전 영농이 아닌 테라스형의 경지[8]나 고상형 농지(高床型 農地)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이 필요하기 마련이었다. 10세기 이후의 후 고전기 똘떼까 마야인의 주택도 역시 반영구 주택의 한 유형인 타원형 주택으로 특징지워

7) 비옥한 남부 저지대는 10년 경작후 이전하였고 북부 지역에서는 그 간격이 짧았다. 다만 후대 들어 인구가 증가하자 (1) 간경의 기간이 짧아졌고, (2) 비옥한 지역 외의 산 사면(斜面)이 경작되어 산사태가 급증하였는데, 그에 따라 기존 경작지도 산사태에 쓸려 망실되는 경우가 잦게 되어 사회적 생산력의 감소가 이루어 지게 되었다. 이러한 예는 후에 논하겠지만 꼬빤에서 잘 관찰할 수 있다.

8) 이는 남부 저지대에서는 극히 희소하였으나 북부 저지대에서는 가끔 관찰할 수 있는 경작 형태로 이 경우 주거는 영구형 석축이 도입될 수 있게 된다.

질 수 있다.[9)]



<그림-4> 왼쪽은 마야인의 타원형 주택, 가운데는 유까딴 일원에 지금도 남아있는 멕시코인의 반(半)이동형 주거 자칼. 오른쪽은 자칼이 형성하고 있는 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군집 형태. 가운데 곡물 창고를 중심으로 군집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버트 쉐나우어 (2004) pp. 80-81.

위의 <그림-4>는 후고전기의 마야 주거를 유형화하여 모사한 그림이다. 마야인의 주거는 공동 우물(혹은 공동 취사 구역)과 종교 의식 장소 주위에 군집을 이루어 형성되어 있고, 주거 내부는 단순한 단일 공간이다. 집은 타원형으로 집 내부에는 취침용 해먹이나 장의자 등 간단한 가구를 설치한다. 취사는 방의 한쪽에서 이루어지는데, 화로를 이용하여 흙냄비에 끓이거나 흙판 위에 구워서 음식을 조리한다.

마야의 도시 형태는 가옥 50호 내지 100호마다 '세렌(Cerén)'의 예에서 보이는 것처럼 공동의 제단이 마련되어 하나의 취락 단위를 이루었고, 또한 많은 취락을 통합하는 대신전이 전체 취락지의 중심지에 있었다. 각 취락 단위는 <그림-4>에 보여지는 것처럼 공동 우물, 창고 등이 있는 공동 광장을 공유하고 있었고, 공동 광장에 인접한 각 공동체의 장로가

9) 노버트 쉐나우어 (2004) p. 80.

거주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농민들의 주택이 들어서 있었다. 사회의 계층 분화가 이루어져 신분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귀족이 발생하게 되자 거주 구역에도 차이가 발생하여 왕족과 고급 귀족은 도시 중심부의 거주 구역에서 거주하고, 일반 귀족과 군인 그리고 수공업자와 상인 등 정주 성향이 강한 계층이 중심부에 인접한 영구적 거주지에 거주하게 되고, 전체 인구의 70%를 점하던 일반 농민들은 외곽의 농경지에 반영구 주거 형태의 가옥을 짓고 거주하고 있었다. 농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남부 저지대의 경우 밀파 농법이 주를 이루던 지역에서는 화경(火耕)의 지속 가능 여부에 따라 10년~수년 간격으로 이동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 증가에 따른 과잉 농경, 천재지변이나 기후 변화,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 정치 문화적 변동, 혹은 외부 사회로부터의 충격 등의 제반 요인에 따라 이러한 도시의 '거주 구역 구분'이 무시되고, 혹은 새로운 '도시 기능'이 부가되거나 하는 도시 구성에 변형이 생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야 도시의 변동 여부를 살펴보고 그 변동을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마야의 사회 변화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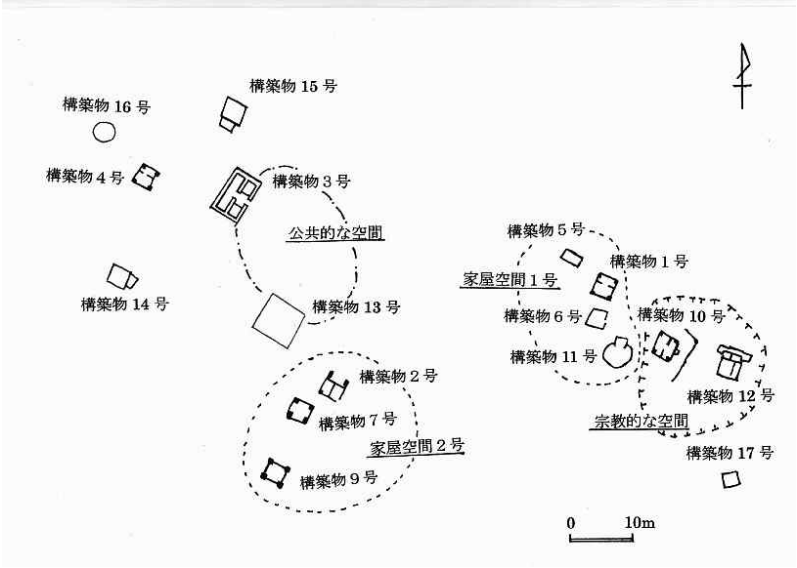
2. 고전기 마야의 주거 형태 – 호야 데 세렌(Joya de Cerén)의 사례

고전기 마야의 거주 문화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곳은 엘살바도르의 수도 산살바도르 북서 36Km에 위치한[10] "호야 데 세렌"[11] 고고 유적지이

10) 호야 데 세렌은 꼬빤 유적지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 유적지와 같은 권역이라고 알려져 있다.

11) 이에 관한 상세한 기록은 Sheets,Payson D.2001 'Cerén (Western El Sarvador)', Archaelogy of Ancient Mexico and Central America: An Encyclopedia, (eds.by Evans,S.T and D.L.Webster), Garland Pub.Inc., N.Y. ISBN 0-8153-0887-6을 참조.

다. 호야 데 세렌[12]은 선고전기 마야 시기인 B.C. 900년 경인간이 거주



<그림-5> 호야 데 세렌의 집락(集落) 구조(Wikipedia/Japan 전재)

하던 곳으로 A.D. 600년경 로마 깔데라(Loma Caldera) 화산의 분화로 화산재 밑에 매몰되었는데, 1976년 발굴되어 7m 두께의 화산재 속에서 14개 문화층을 드러내어 아메리카의 폼페이라고 불리우는 곳이다. 이 지역은 중앙 멕시코의 떼오띠우아깐의 영향을 받은 고지대의 까미날후유의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이라 생각되고 있다. 이 유적지에는 건물과 정원, 농기구와 경작지까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어, 고전기 마야 시대의 메소아메리카 농민 생활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현재 발견된 유적군은 앞의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남북으로 60m 동서로 100m 정도 크기인데, 동쪽으로부터 종교적인 공간 => 집합주택 A

12) 본 논문 작성을 위해 2009년 7월에 유적지를 직접 방문해 관찰하고, 필용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옥공간 1) => 공동적 공간 => 집합 주택 B(가옥공간 2) => 분산된 가옥들 => 경작지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전기 그리스의 도시 구성 즉 아크로폴리스(ACROPOLIS) => 공동 공간, 즉 상업 공간 및 아고라(AGORA)) => 가옥군(家屋群)=> 경작지와 흡사한 양태를 보인다는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옥은 대개 선외와 눈외로 보강된 흙벽[13]으로 지어졌으며, 몇몇 구축물은 흙벽돌로 지어지기도 하였는데, 지붕은 벽을 가로지른 대나무로 덥힌 구조였다. 거주형 가옥은 주방(부엌)과 거실(침실), 식료품 창고로 이루어졌고, 작업장이 부가된 집합형 가옥군(家屋群)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집합 가옥군은 세렌 유적지에 2개가 나타나고 있으며 또 가옥군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거용 가옥들이 서쪽 방향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유적 동쪽에는 사슴의 견갑골(肩胛骨) 및 적색 토기, 또 건물 외부에서는 조리용 토기들이 있는 "신성 공간(神聖 空間)"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공동목욕탕 및 주술 혹은 의술에 사용된 듯 한 전문인의 가옥을 포함하여 종교적인 공간[14]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목욕탕(Wheathouse)이란 제의를 지내기전 몸을 깨끗이 씻는 공간이라는 의미로서 사용된 것인데 일반적인 목욕탕은 B.C.2500년의 모헨조다로 유적, 기원전후의 유대교 사제 가옥에서 발견되고 있고, 호야 데 세렌과 같은 유형의 증기 목욕탕은 6세기 빨렝께(Palenque) 및 10세기 전후의 치첸잇싸(Chichen Itza)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이처럼 목욕탕은 문화 유적지의

13) 선외란 수직 보강재, 눈외(누운 외)란 수평 보강재로 한옥 건축시 기둥 사이의 토벽을 쌓을 때 사용하는 방식과 같다. 즉 벽돌을 쌓는 조적식 구조가 아니라 종횡으로 옥수숫대(한옥은 수숫대를 사용)를 엮은 흙벽이 주였다.

14) 건물 진입로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정낭(가로지른 막대)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주위의 벽이 격자무늬로 장식되어 있어 특별한 용도에 사용하는 공용건물임이 식별 가능하였다.

<그림-6> 호야 데 세렌의 종교 공간 <그림-7> 호야 데 세렌의 증기목욕탕

종교적 공간에서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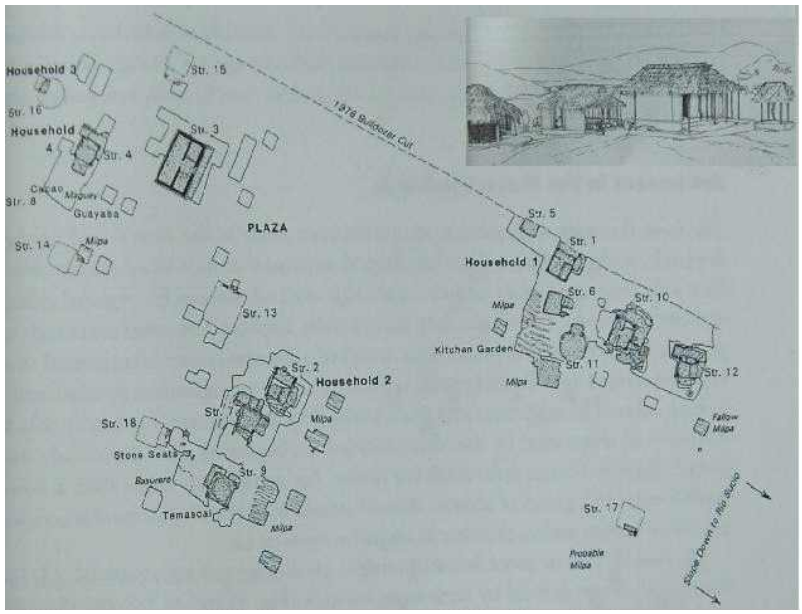
유적의 중앙부에는 공동 사용 공간이 자리하고 있다. 이는 세렌 유적지의 중앙 부분 5m*8m를 점유하고 있었는데 비교적 큰 구조물 3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물의 안팎에서는 골각기(骨角器) 및 목기(木器) 류의 공구)와 식량이 담긴 수십개의 채색 토기 및 공예품 등이 발견되었고, <그림-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건물에 인접하여 경작지[15]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곳에서는 옥수수, 카카오, 구아야바(guayaba) 등의 식물이 재배되었는데, 이들이 주식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경작지를 연구한 결과 사용된 농법은 물을 이용한 농법이었는데, 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대고 여러 종의 작물을 이랑과 고랑에 나누어 경작하는 농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옥 공간들은 대개 주변보다 0.5~1m 높게 대지(垈地)를 구축한 위에 지어 졌으며, 가족별로 각기 독자적으로 사용된 창고, 저장 공간에서는 70여개에 달하는 토기 및 제분(製粉)용 석제 도구가 발견되어 가족의 수가 작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집락의 공간 구성에서 유

15) 이는 경지(耕地, Fundas, or Fields) 및 채전(菜田, Heredium)의 개념이 아직 분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추된 대가족이라는 요소는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먼저 마야 사회의 공동체는 대가족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다. 호야 데 세렌에서 경지(耕地) 및 채원(菜園,: Heredium)이 미분화(未分化)의 흔적이 보이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의 공동체가 원시 공동태[16]의 양태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옥 공간 1호'과 '가옥



<그림-8> 엘 살바도르에 위치한 호야 데 세렌의 지도. 경지와 농작물을 표시하고 있다.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 (2006) p 681에서 전재 후 편집.

공간 2호'가 별도의 분화된 주방, 거실, 창고 등 세 가지 주요 기능 공간을 각기 가지고 있고, 목욕탕과 공동 작업 공간도 나뉘어 있으며, 경작

16) 원시 공동태란 기술 발전 단계상 아직 생산.소유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회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시 공산사회와 흡사한 개념임. 공동태(共同態) 및 공동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대총구웅(大冢久雄) 저작집, 권(卷) 7 "공동체의 기초 이론"을 참조.

지에서의 생산물이 가족별로 각 가족의 창고에 나뉘어 저장됨으로 미루어 본다면 가족별로 소유가 분화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호야 데 세렌에서 보여지는 마야의 집락 구조는 이들의 사회가 마야의 대가족[17] 별로 생산 및 소유의 단위가 분화된 아시아적 공동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게 한다.[18]

3. 고전기 마야의 도시 형태 변화 -꼬빤(Copán)[19]의 사례

고전기 후기에 융성하였던 꼬빤은 띠깔의 영향을 짙게 받고 있던 도시로 온두라스(Honduras) 지역의 모타구아(Motagua) 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인접 도시인 끼리과(Quiriguá)의 모도시(母都市) 역할을 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꼬빤의 전성기 인구는 2만5천에 이르렀는데, 몰락 이후에도 15,000~10,000명의 인구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

17) 마야의 대가족으로 형성된 공동체를 꾸츠데엘(Cuchteel)이라 하는데 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반독립적 단위를 형성하며, 그룹의 장로(elder)가 대표하며, 상위 집단에서 이들의 의사 행위를 대리한다.

18) 아시아적 공동체 사회란 채원(菜園, Heredium)만이 개별 단혼 소가족 단위에게 분여되고, 주된 경작지(Fundas)와 공동지(共同地, Commons)는 아직 공동체의 전체 소유로 남은 단계를 말한다. 이는 채원, 경지, 공동지의 소유가 모두 미분화된 상태인 원시 공동태의 단계보다는 한 단계 소유 분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 이후 그리스-로마적 공동체(Greek-Roman Community) 단계에 이르면 채원 뿐만 아니라 경작지까지도 개별적 소유에 이르게 되고 공동체적 소유는 공동지에서만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으로 소유의 분화가 게르만적 공동체(Germanic Comunity) 단계에 이르게 되면 채원, 경지, 공동지등 전체 토지가 프랑스의 만스(Mans), 독일의 후훼(Hufe)등으로 공동지 이용권을 포함한 전토지의 소유 분화가 완료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 이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성립이란 공동체 사회의 해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이는 전자본주의하(前資本主義下)의 공동체, 즉 공공사회(Gemeinschaft)적 성격을 가진 공동체 사회가 보유한 생산 수단의 공동적 소유에서 이탈하여, 이른바 생산 수단으로부터의 소외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한다. 이렇게 된 사회를 이익 사회(Gesellschaft)라고 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제 특질을 반영하는 말이 되고 있다.

19) 꼬빤의 사진들은 모두 2009년 7월에 현지에서 직접 촬영해온 것이다.

꼬빤은 8세기 중엽, '18토끼왕'(18 Rabbit, Uaxaclajuun Ub'aah K'awiil, 재위 A.D.695-A.D.738)의 사후 몰락 과정에 들어갔다고 알려져 왔다. 끼리과에 있는 '카우악 스카이(Cauac Sky, K'ak' Tiliw Chan Yopaat)'의 석주(estela)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끼리과의 침공으로 18토끼왕이 살해당한 후, 꼬빤의 몰락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주도시인 꼬빤과 끼리과의 당시 세력이나 문화 전승 형태를 감안하면 끼리과의 침공에 의한 몰락이라는 기록을 단순히 믿기 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몰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20] 꼬빤은 이른바 몰락 이후에도 유지되었다. 불타거나 파괴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다. 그렇다면 꼬빤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왕이 없어지고 쇠퇴의 경로를 걷게 되

<그림-9> 꼬빤의 2번째 주요 주거지 공동묘지 지역의 귀족 가옥 유적. 중앙에 광장이 위치하고 사면에 가옥이 배치되어 있다.

<그림-10> 꼬빤의 귀족 가옥 유적지 위쪽의 묘지지역. 석축 기단, 벽면은 관찰되지 않는다.

20) A.D.738년에 사망한 18토끼왕의 기사를 끼리과에서 이용한 것 같다는 견해는 John S. Henderson (1997) pp.171-172 참조.

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농경의 과잉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모따구아 강 상류에 위치한 꼬빤의 농경은 초기에는 계곡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다. 비옥한 계곡 지역에서 일반 농민은 단칸방이 있는 초가에서 살았는데, 50가호 내지 100가호마다 공동의 제단이 마련되어 하나의 취락 단위를 이루었고, 이들 다수의 취락을 통합하는 대신전이 전체 도시의 중심지에 있었다. 대신전이 위치한 도시의 중심부에는 왕과 고위 귀족, 종교 계급이 살고 있었고, 중앙 광장과 연결된 동쪽의 공동묘지(Las Sepulturas)는 두 번째의 주요 거주지였다. 이 지역에는 귀족과 군인, 상인과 수공업자 등의 정주 계급이 살고 있는 남쪽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기단 위에 석축으로 건조된 벽면 구조가 아직 남아있다.[21]

<그림-11> 꼬빤의 사크베. 두 번째 주요 거주지역(Las Sepulturas)와 중심지를 잇는 길이다.

농민들은 중심지의 주거 구역이나 공동묘지 지역의 두 번째 주요 주거지에는 거주하지 않았다. <그림-10> 같은 표지석으로 농민의 거주지였음을 알 수 있는 지역은 묘지만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인데, 영구 주거의 표상인 석조 대지나 석축이 존재하지 않고 있는 지역인 바, 토지의 생산력이 떨어지면 이동해야 하는 토벽 및 초가 형태의 반영구 주거가 건설

21) 공동묘지에 주거가 전설되었다는 것은 마야의 주거 내에 조상의 시체를 묻는 조상 숭배의 관습이 계속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곳의 주거 건축물들 역시 중앙에 공간을 두고 사면에 건물을 배치하는 양식이 중첩되어 있었다.

되었던 지역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요 주거지는 <그림-11>과 같은 사크베(sacbe)를 통해 꼬빤의 중심지와 연결되었는데 주요 제의나 행사가 있을 때는 이 길을 이용하여 서쪽에 위치한 꼬빤의 대 광장으로 진출하였을 것이다.

안정된 꼬빤의 사회 구조와 A.D.450-550년의 한발의 시기를 지난 후에는 별다른 환경적 요인도 작용하지 않았기에 꼬빤 계곡 지역은 안정적 성장 경로에 들어 있었다. 최초로 경작된 지역은 <그림-12>에서 보여지는 가장 연한 색으로 표시된 지역인데 모타구아 강을 끼고 있는 중심지 지역(중앙의 건물군)과 왼쪽(서쪽)에 위치한 농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거주 지역과 오른쪽(동쪽) 인근의 거주 지역을 포함하는 이른바 계곡 지역이다. 계곡 지역의 비옥한 땅에서 원활한 재생산이 이루어지자 인구가 증가하였고, 이들의 급양을 위해 곧 상대적으로 비옥하지 못한 표층 토양이 척박한 사면이 경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림-12>의 짙은 색으로 표시된 고지대가 이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은 모두 다 여섯 군데였는데 이 다섯 군데가 모두 경작되고 있었던 시기가 인구가 25,000명에 이르던 꼬빤의 전성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산사면의 경작은 워낙 척박한 땅이어서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고, 이에 더하여 토지를 지탱하여 주는 삼림의 황폐화를 가져와 산사태를 일으켰다. 산사태로 망실된 토지는 산기슭의 농지뿐이 아니었다. 계곡 지역의 농지마저 산사태에 묻히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22] 이렇게 되자 사회의 재생산 구조는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마야의 왕은 천재지변을 막고 풍요로운 수확을 보장할 책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자 18토끼 왕은 이러한 천재지변을 극복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다. 왕은 책임을 지고 사라졌고[23] 뽀뽈나

22) 현재 꼬빤 지역의 발굴 결과는 산사태의 결과, 산사면의 흙이 계곡지역의 농경지를 덮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이 사건이 끼리과(Quiriguá)에 이용되어 18토끼왕의 패전후 사망으로 기록되었을

<그림-12> 꼬빤 계곡의 주거 구역과 농경지 배치도 (2009년7월 현지에서 직접 촬영함)

(Popol Nah, 귀족 회의)에서 사회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인구는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 전성기에 25,000명에 이르던 인구는 10,000명 정도로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었다. 주거 지역의 구분도 사라져 버렸고 대신전 구역 안에도 농민의 가옥이 들어서게 되었다. 하지만 꼬빤은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유지될 수 있었다. 꼬빤은 과잉 농경에 의한 도시의 쇠퇴를 전형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모델 지역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4. 마야 도시의 기능 보완 – 방어 기능

고전기의 말기에 마야의 도시들에는 방어적 기능이 부가되었다. 고전

가능성도 있다.

기 초기나 중기에는 도시간 전쟁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도시국가의 수장이 위엄을 과시하고자하는 목적에서 일어난 과시적 목적의 전쟁이나 시발바의 신을 누르고 천지 창조 신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 부가된 종교적 전쟁[24]이 주목적이었기에, 상대 도시를 파괴하거나 불태워 버리고 모든 사람을 학살하는 약탈 전쟁으로 확장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었지만 고전기 말기에 들어오면서 전쟁의 양상은 일변하여 도시는 부득이하게 총체적인 방어 기능을 부가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4.1 깔락물(Calakmul)의 사례

마야의 고전기 전기에서 말기의 초반(A.D. 250~695년)에 걸쳐 존재하였다고 알려진, 뱀머리로 상징되는[25] 깔락물은 유까딴 반도 남부 저지대 뻬뗀(Petén) 지역에 위치했던 강력한 마야 도시국가였다. 깔락물의 유적 전체 면적은 74㎢에 이르며, 중심 지역은 24㎢ 정도라 알려져 있는데, 아직 발굴되지 않은 곳이 남아있다. 유적의 북쪽에는 성벽과 수로가 있고, 남은 건축물의 수로 미루어 볼때 전성기에는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깔락물은 남쪽으로 70Km 정도 떨어진 띠깔(Tical)[26]과 경합하였다고 알려졌었지만, 최근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A.D.

---

24) 구기장의 공놀이 경기(Jue해 de pelota)를 위한 제물 획득 같은 종교적 목적의 전쟁을 말한다.

25) Schele, Linda and Freidel, David. (1990) pp.456~457

26) 띠깔은 AD.376~768년의 기간 동안에 왕조 통치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고전기 초엽(A.D. 300~600)에는 엘미라도르를 거쳐 떼오띠우아깐의 영향(430년경 떼오띠우아깐인들이 남하하여 띠깔의 기초를 쌓았다)을 받았으나, 후기에는 깔락물과 쟁패하면서 발전을 이루어, 8세기 초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저지대 마야 최대의 정치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9세기 초(830년) 무렵부터 인구가 줄어들어 이곳을 버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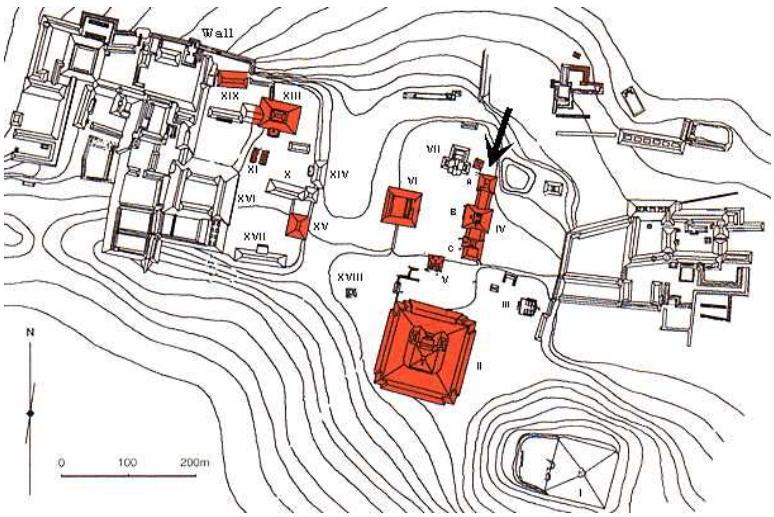
695년에 띠깔에 최종적으로 패배하기 전에는 가장 강력했던 마야 도시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깔락물은 인근 도시인 야스칠란(Yaxchilan), 나란호(Naranjo), 및 까라꼴(Caracol)과 연합하여 띠깔을 정복하였으며, 티깔 인근에 엘 뻬루(El Peru)와 도스 삘라스(Dos Pilas)[27]같은 위성 도시를 건설하여 마야 저지대를 지배하였다. 그 동맹의 방법은 외교적 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야스칠란의 이참나 발람(Itzammnaaj B'alam II, A.D. 681-742년간 재위)에게 익 수쿨(Ik' Skull)을 시집보내는 동맹혼, 또 삐에드라스 네그라스(Piedras Negras)의 경우처럼 협상을 이용하는 방법 등.)과 전투 후 협상을 통한 동맹(나란호의 경우) 등이 있다. 뻬뗀 지역의 쟁탈전에서 깔락물은 계속 우위를 유지하였으나 A.D. 695년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띠깔이 승리하게 된다. 띠깔은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화는 길지 아니하였다.[28] 유명한 띠깔의 네 피라미드가 완성된 기간이 바로

27) 도스 삘라스의 왕은 띠깔 왕의 실제 형제라고 일려져 있다. Pilas의 통치자(Balaj Chan K'awiil)는 꼭두각시 왕으로서 행동하였는데 띠깔에 대해서 대리 전쟁을 10년간 수행하였다.

28) 9세기경부터 중부 지역 마야의 여러 도시 국가는 연쇄적으로 쇠퇴하였다. 그 원인은 유적의 석비의 모양과 토기로부터, 멕시코로부터의 침입자가 있었다거나, 북부 지역으로 교역의 이권이 이동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등의 유력한 여러 설이 있으나, 고전기 후기(기원후 600년 ~ 900년)이 끝날 즈음 인골에 영양실조의 경향이 있음이 판명되었고, 화전농법(Milpa 농법)과 건축물에 사용되는 회반죽(소석회)을 만들기 위해 삼림 벌채로 땅의 힘이 감소하여 식량 부족과 질병의 유행을 초래하여, 이로부터 지배 계층의 권위의 손상, 적은 자원의 쟁탈전 등에 의해 전쟁이 격해져 쇠퇴를 앞당겼다고 생각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9세기에 일어난 고전기 마야의 몰락 원인을 7천년 이래의 최악의 가뭄에 있음을 증명한 논문이 있다. "Dendrachronology, mass balance and glacier front fluctuations in Northern Sweden(연륜 연대학과 스웨덴 북부에서의 질량 균형과 빙하 전선 동요)"라는 논문이 그것이다. 폴 마예스키(Paul Mayewski)에 의하면 북반구에서의 극적 기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호수 지층의 코어에서 암모늄을 검출하였는데, 식물이 많았다면 암모늄은 증가했을 것이지만 동 시기에는 암모늄양의 엄청난 감소를 기록하였다 한다. 마야 붕괴의 그 시기, 즉 9세기에 북반구는 극히 건조하고 한랭한 기후를 맞았던 것이고 저지대의 고전기 마야는 몰락 위기를 맞이하였던 것이다.

이 시기인데, 바로 A.D. 695년부터 A.D. 830년에 이르는 기간이다. 이후 깔락물은 역사의 뒤로 사라졌고, 띠깔 역시 869년에 마지막 건조물이 제작되고 있기는 하지만 9세기 초에 이르면 깔락물에 이어 띠깔 역시 버려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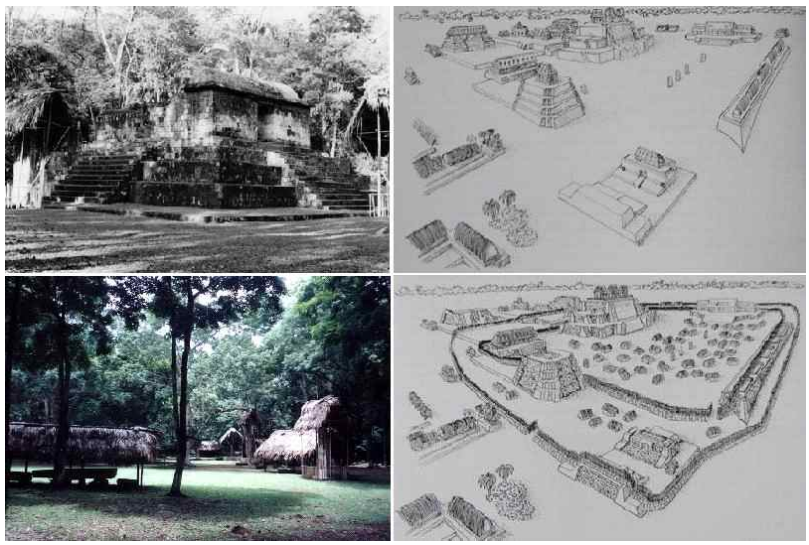
A.D. 6 세기에 이르러 Ku Hix(Tuun K'ab' Hix)는 깔락물 인근의 다른 마야 도시들과 전략 동맹을 맺는다. 깔락물이 북쪽에서, 동쪽에서는 나란호, 그리고 서쪽에서는 야스칠란이 남쪽의 띠깔을 상대로 공수동맹을 맺은 것이다. 이러한 전란의 시기에 깔락물에는 방어를 위한 성벽이 등장하게 된다. <그림-13>의 왼쪽 위의 아크로폴리스 북쪽 지역에 wall이라 표시된 성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13> 깔락물의 방어 성벽 (2008년 2월 현지 답사)

4.2 도스 삘라스(Dos Pilas)의 사례

깔락물이 인근 도시인 야스칠란, 나란호 및 까라꼴과 연합하여 띠깔을 정복하였을 때, 엘 뻬루와 함께 티깔 인근에 건설된 위성 도시인 도스 삘라스는 한때 남부 저지대를 지배하는 강국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나 A.D.695년의 깔락물의 패퇴 이후 A.D.761년에 이르러서는 세력을 상실하고 인근의 아구아떼까로 이주하였다. 이후 도스 삘라스는 세력을 잃었고, <그림-14>의 오른쪽 위와 같이 위용을 과시하던 도시가 오른쪽 아래의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왕궁, 신전 등의 지역에 방어벽을 쌓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도시 중심 구역에 건설된 방어 구역 내에까지 주거 시설이 건설되었다.



<그림-14> 왼쪽 위는 도스 삘라스의 신전 구역, 왼쪽 아래는 중심 구역에까지 들어온 주거시설의 재현 모습, 오른쪽 위는 전성기의 도스 삘라스 중심부, 그 아래는 쇠퇴기에 방어시설을 건설한 중심부의 모습. 왼쪽은 Marry Eellen Miller (1999) pp 34-35에서 전재.

4.3 아구아떼까(Aguateca)의 사례

아구아떼까는 과테말라의 뻬떼스바뚠(Petexbatun) 분지에 위치한 도시로서 B.C.300년에서 A.D.350년의 선고전기에 정착이 이루어진 도시였는데 A.D.700년 경에 크게 번성하여 인구밀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알려져 있다. 또 인접한 호수를 통해 보트를 사용할 수 있어 피신의 수단도 갖추고 있었다. A.D.761년 도스뻴라스의 군주는 주변 지역과의 항쟁을 견디지 못하여 도스 뻴라스를 버리고 귀족 계급을 데리고 아구아떼까로 이주하였다. 이후에도 인근 지역과의 항쟁은 지속되었고 우차 칸 발람(Ucha'an K'an B'alam)의 아들인 탄 테끼니치(Tan Te' K'inich)의 지배기에 침공당해 도시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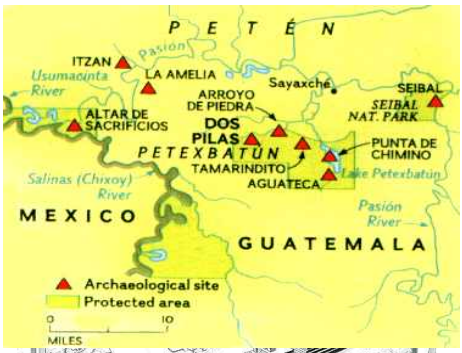
<그림-15> 아구아떼까의 성벽과 해자(垓字)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2006) p.410.

A.D.830년경 아구아떼까는 버려진 도시가 되었고 거주민은 흩어져 버렸다. 아구아떼까의 유적지에는 도자기가 원래의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어 급격히 도시를 버리고 떠난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후 밀림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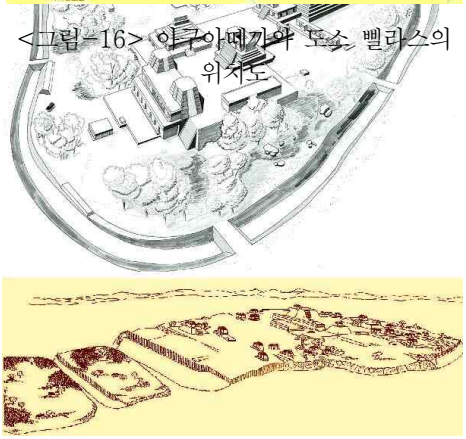
묻혀 잊혀진 도시가 되었다. <그림-15>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구아떼까는 동남쪽은 높이가 90m에 이르는 석회암 절벽이고 서북의 전면은 총길이 4.8Km에 달하는 성벽과 해자(垓字)로 보호되어 있어 방어 기능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었다.

4.4 베깐(Becán)과 뿐따 데 까미노(Punta de Chimino) 등 기타 사례

띠깔의 북쪽 150Km 지점의 멕시코의 캄뻬체 주에 위치한 베깐은 발람꾸(Balamku), 깔락물, 치까나(Chicanna)와 쉬푸힐(Xpuhil)과 인접한 유까딴 반도의 북부 저지대 마야 도시이다. 선고전기 중기부터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한 베깐은 A.D.500년 경에 다시 부흥했지만 A.D.1200년경에 다시금 버려진 도시가 되었다고 한다. 전성기인 마야 고전기 말기의 건축 양식을 리오벡(Rio Bec) 양식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 도시에 주요 건축물이 모두 건설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고



<그림-16> 아구아떼까와 도스 삘라스의 위치도



<그림-17> 윗 그림은 고전기 말기의 베깐의 방어 시설. 해자(垓字), 아래 그림은 뿐따 데 치미노(Punta de Chimino)의 방어 시설. 목책과 해자가 중첩되어 있다. (2002년 9월 현지 답사)

전기 말기의 격동기에 이 도시는 방어 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으로도 유명했다. <그림-17>의 위에서 보이는 것 처럼 도시 중심부를 아우르는 해자(垓字)가 설치되어 있어 여섯 개의 통로를 제외하고는 도시 중심부로 접근할 수 없는 방어 시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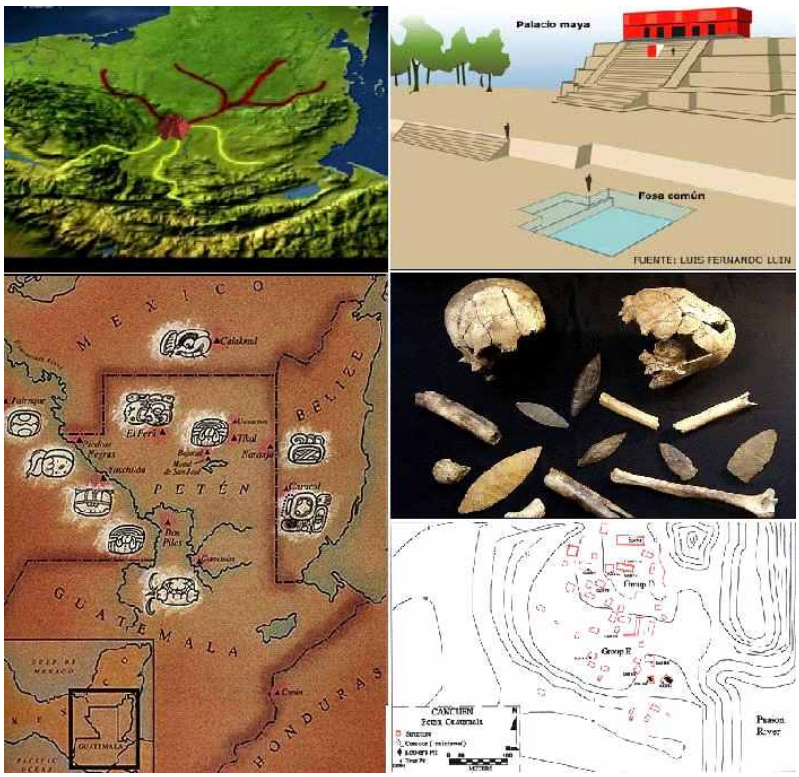
<그림-17>의 아랫 부분에서 보여지는 고전기 말기 무렵, 유명한 항쟁 지역이었던 페텍스바뚠 호수 근처에 위치한 뿐따 데 까미노의 방어 시설도 주목할 만 하다. <그림-18>의 위치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뿐따 데 까미노는 도스 삘라스, 아구아떼까, 그리고 깐꾸엔(Cancuén)같은 항쟁 지역에 인접하여 있어 호수로 향한 돌출부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진입 부분에 목책과 해자를 반복 설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볼 깐꾸엔이 동 시기에 몰락한 것처럼 이러한 방어 시설을 갖춘 뿐따 데 치미노 역시 오래 버티지 못하고 몰락의 길로 접어 든 것을 보면, 마야 고전기 말기의 사회 변동에 따른 혼란상은 매우 심각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림-18> 뿐따 데 치미노 위치도

5. 마야 도시의 완전한 파괴 - 깐꾸엔(Cancuén)의 사례

과테말라에 위치한 깐꾸엔은 옥과 황철광, 흑요석 등의 상품을 거래하는 마야의 주요 무역 중심지였다. 고전기 동안 깐꾸엔은 <그림-19>의 지

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마야의 각 지역들을 연결하는 주요한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 빠시온(Pasión)강에 인접한



<그림-19> 깐꾸엔의 위치와 인근 지역과의 연관, 오른쪽 위는 궁전앞의 유골 발견 지점을 표시하고 잇으며 그 밑은 창과 칼에 의해 손상된 발굴된 유골을 보여주고 있다.

띠유리한 위치에 힘입어 깐꾸엔은 200개의 방을 가진 궁전을 건설하였으나, 9세기 초반 창과 도끼로 무장한 신원미상의 무장 집단이 침범하여 칸 막스(Kan Maax) 왕과 부인 등 그 일가족 45인을 참살하였다. 이들의 유해(<그림-19>참조)는 궁전 앞의 연못에 던져 넣어졌다. 유해들은 아서 디마레스트 교수가 이끄는 미국 밴더빌트대 발굴팀에 의해 발굴되었는

데, 미처 유해에서 장신구도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창과 도끼로 살해되었다. 왕과 그의 가족들이 성장한 채 즉결 처형 방식으로 학살되었고 주변의 석상도 훼손됐다는 점을 볼때 이 사건은 깐꾸엔의 왕가와 도시 전체가 정복당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발굴자인 디마레스트 교수는 깐꾸엔의 학살 사건이 고대 마야의 몰락을 가져오는 도미노의 시발이라고 주장하면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 되고 있다.[29]

깐꾸엔의 사례는 현저한 파괴의 예였다. 사망한 왕의 시신이 수습되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였고, 도시는 파괴되었고 불탄 후에 버려졌다. 도시의 주민들은 모두 흩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고전기 마야 사상 최대의 완전한 도시의 붕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물론 모든 마야의 도시들이 이러한 철저한 파괴 과정을 겪지는 않았다. 파괴된 도시는 극소수 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위협은 전채 마야 사회로 퍼져나갔다. 각 도시들에 방어 기능이 부가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과 일정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교역 도시 깐꾸엔은 부유한 도시였기에, 재생산이 불가능해진 인근 지역의 도시 세력에 의해 파괴 및 약탈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깐꾸엔은 파괴되었으나 인근의 도시들은 재생산이 불가능해 지자깔처럼 그냥 방기되거나 꼬빤처럼 인구가 줄은 상태로 유지되었다. 깐꾸엔의 사건이 고전기 마야 붕괴의 시발점이 되었다든지. 도미노를 초래했다든지 하는 주장은 더 검토해 보아야 하겠지만 중요한 시사를 주는 것임은 틀림이 없을 곳이다.

---

29) 펜실베이니아대의 로버트 섀러 교수는 디마레스트 교수의 주장이 "스페인의 특정 지역에서 불에 탄 왕궁터를 보고 로마제국 전체의 몰락을 설명하는 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깐꾸엔 사건을 너무 과대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Ⅲ. 고전기 마야의 쇠퇴 원인

이상에서 살쳐본 것처럼 마야 사회는 고전기 말기에 심각한 대변동을 겪었고, 이러한 변동의 영향으로 마야 사람들의 거주 형태나 도시 구조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본 장에서는 간략하게 이러한 변동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1. 쇠퇴 원인에 대한 기존 학설

빛나는 문명을 이룩했던 고대 마야가 9세기 무렵 갑자기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내란이나 이민족의 침입, 가뭄, 질병, 생태학적 재난 등 수많은 가설이 제기돼 왔다. 제레드 다이아먼드(Jared Diamond)는 문명의 몰락 요인을 5가지로 꼽고 있는데 그는 마야의 몰락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30] 그는 마야 사회의 붕괴 요인을 자신이 세운 다섯 가지 요인의 붕괴 모형에 대입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첫째 요인으로 과도한 농경으로 인한 삼림 파괴 및 침식을 꼽고, 둘째 요인으로 천재지변 즉 가뭄 등 기후 변화를 꼽는다. 그리고 셋째 요인으로는 사회의 내홍(內訌)을, 넷째 요인으로는 정치문화적 요인을, 다섯 번째로 외부 사회와의 갈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고전기 마야 사회는 다섯 번째 외부 사회와의 갈등은 없었으므로 이 요인을 제외한 4가지 문제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사회 변화 요인을 모두 나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1)~(4)까지의 요인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 환경 파괴 때문에 사회적 재생산이 불가능해 졌고((1),(2)요인), 그 때문에 생긴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3),(4)요인) 마야 사

30) 제레드 다이아몬드 (2009) 제5장 마야의 붕괴 pp.222-251 참조.

회는 붕괴되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요인인 외부로부터의 충격은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내리면서 그 이유로는 흑요석등 주요한 교역품의 공급 중단 없이 우호적인 교역이 지속되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러한 그의 견해는 다음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환경파괴가 마야 문명의 붕괴를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마야 문명의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그의 책 전체를 관류하는 주장인바 환경 파괴가 모든 문명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논조를 펴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지적할 문제는 마야의 환경 파괴가 마야 전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구가 조밀화하고, 그리하여 과잉 경작이 발생하여 삼림 파괴와 침식이 발생한 지역은 울루아 계곡이나 남부 저지대나 북부 저지대 등 일부 지역에 불과 하였다는 것이다. 울루아 모타구아 강가의 꼬빤이 과잉경작으로 쇠미해진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이므로 이 경우는 그의 견해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뻬뗀 지역 이나 뻬텍스바뚠 지역의 저습 지대는 환경 파괴라기보다는 그가 지적한 두 번째 요인이 우세하다. 마야 지역의 대한발(大旱魃)은 선고전기에서 고전기로 접어들던 3세기에 한번, 고전기 중기에서 말기로 접어들던 5-6세기에 또 한번, 그리고 고전기가 끝나는 10세기에 기록적인 대한발이 기록되었고, 그리고 나서 똘떼까 마야의 형성이후 치첸잇싸의 붕괴 시기인 13세기 경에 또 한번 발생하여, 16세기에 스페인인이 침입하기 전까지 특정한 지역의 사회적 재생산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 다른 마야 지역 그러니까 우수마신따강 유역인 삐에드라스 네그라스, 야스칠란, 알타 데 사크리피시오스, 보남팍과 마야의 서북 변경 지역인 빨렝께, 또니나(Tonina), 꼬말깔꼬(Comalcakco) 등의 지역은 과잉 경작이나 자연 재해에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에는 벨리쎄 지역이나 유까딴 해안 지대도 여기 포함될

수 있다. 또 그가 지적한 3.4의 요인은 사회적 재생산이 불가능해 지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원인이라기보다는 사후적으로 발생되는 결과에서 비롯된 문제점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섯 번째 요인, 즉 외부의 충격은 없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서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마야 문명은 초기 몬떼 알반(Monte Alban)을 거쳐 올메까의 영향을 받아 문자 및 월력, 종교 등의 영향을 받았고, 이후 고전기 초기에 중부 멕시코의 떼오띠우아깐의 영향을 받았는데 고지대 마야의 까미날후유(Kaminaljuyu) 등지를 거쳐 정치 체제, 건축 양식, 토기 등이 뻬뗀 지역에 전수되었고, 이 문화 전파 경로가 떼오띠우아깐의 상인들이 이용하는 교역로의 기능을 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고지대와 뻬뗀, 뻬텍스바뚠과 우수마신따 유역과 서북 변경, 벨리쎄, 울루아 저지 등은 얽히고 설켜서 상호간에 교역을 하였는데, 그 주된 교역품은 제레드 다이아먼드가 지적한 울루아의 흑요석이나 중앙 아메리카 남부의 케찰 깃털 같은 고급품도 있었겠지만, 역시 주력 상품은 해안 지대의 소금과 벨리쎄의 도구 제작용 각석, 중앙 멕시코의 도자기 등이었을 것이다. A.D. 550-650에 걸치는 떼오띠우아깐의 소멸은 띠깔의 지도 체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고, 띠깔과 깔락물의 항쟁에 따른 교역 단절, 사회적 재생산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교역 중심지의 약탈(깐꾸엔의 경우)은 필수품 교역 환경의 악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외부적 충격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잇싸(Itza)인의 도래였다. 이 멕시코의 도래인들은 유까딴 반도의 서부 해안을 타고 유까딴 북부로 진출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또 하나의 주된 경로는 우수마신따 강을 경유하는 경로였다. 꼬말깔꼬 인근에서 출발한 도래인들은 모도시(母都市)인 빨렝께를 물리치고 서북 변경 지역의 주역이 된 또니나를 경유하여, 우수마신따 강 유역의

야스칠란을 거쳐, 베덱스바뚠 배신의 세이발을 점령한 뒤 베덴 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들이 도래했다는 증거로 지적할 수 있는 지표 유물은 '파인 페이스트(Fine paste) 도기'인데, 이 도기가 그들의 도래 경로를 타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 이 도기의 제작자 집단인 잇싸인의 마야 지역으로의 침입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그렇다면 외부의 충격은 없었다고 판단하는 제레드 다이아먼드의 주장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기 마야 사회의 변동, 몰락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 사회 변동을 초래한 원인을 한 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들다. 앞에서 제시한 제레미 다이어몬드 식의 포괄적인 표현도 일리가 있지만, 특정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하는 가능성까지 봐야할 것이다.

2. 쇠퇴 원인에 대한 하나의 가설

A.D.450~A.D.550의 기간 이후 마야 사회는 안정적인 사회적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국지적인 한발 등의 재해는 있었겠지만 수백년래의 대한발이 발생한다는 등의 천재지변은 없었던 것이다. 당시의 마야 사회에 있어 큰 문제점의 하나는 사회 계층의 분화에 따르는 좌식 계급(坐食階級)의 급양 문제였을 것이다. 주거 형태 부분에서도 살펴보았지만 고전기 말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마야 사회의 신분 계층 분화가 충분히 이루어져서 왕족, 제사장, 귀족, 그리고 서기 계층 등의 좌식 계급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또 이들은 타도시와의 교역을 통해 고급 생활 물자를 조달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야 사회에서 채택된 농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구 급양 능력이 1:2에 불과 했고, 이들이 생산한 생활 물자들은 직접 소비되거나 혹은 교환에 돌려져야 했기에 더욱 많은 농민이 필요했고 따라서 70%에 달하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옥한 남부 저지대인 베덴과 베넥스빠뚠 등지

에서는 통상적인 환경 하에서 좌식 계급의 급양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다만 이들의 불만을 억제하기 위하여서 뽀뽈부로 대표되는 신화 체계가 적절히 이용되었으며[31], 농번기를 제외한 기간에 이들이 유휴 노동력으로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이나 도시 건설 등에 이들을 투입하였다. 실제로 마야 사회는 동양적 전제 사회에서 흔히 관찰되는 수리(水利) 사회는 아니었지만, 인구 급증으로 그들을 통제할 필요성에서 그러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32]

또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대규모 노동력 단위가 필요했던 사례도 관측되고 있다. 기존의 학설에 따르면 마야의 농경은 주로 화전 방식으로 영위되었다고 이해되고 있었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는 유까딴 북부 뿌욱(Puuc)지역의 테라스형 영농[33], 농지를 북돋워 올린 고상형(高床型) 농법 등이 영위되는 지역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는 앞에서 살펴 본 '호야 데 세렌'의 사례에서도 유추 가능하다. 선고전기 마야 시대인 B.C. 900년 경부터 고전기 마야 시기인 A.D. 600년의

31) 신화 체계의 이용을 통한 주민 편제 유지의 대표적 사례는 공놀이이다. 뽀뽈부의 우주 창조 설화. 즉 시발바에서의 공놀이가 마야 전역에 걸쳐 시행되었다. 특히 고전기의 꼬판과 고전기 후기의 또니나에서의 이용례는 주목할 만하다고 하겠다.(건축, 조각 및 벽화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음)

32) 비트포겔(Karl August Wittfogel)이 지적한 바, 동양 사회는 수리사회(水利社會)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대규모로 편성된 노동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칼 A. 비트포겔 著, 邱鐘書 譯 "東洋的 專制主義" 法文社 (1991) 참조). 수리사업은 대규모의 인력 동원을 필요로 했고, 이는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등 최초의 고대 문명에 공통적인 사항이었다.

33) 춘분 이후의 강우기(降雨期)에는 빗물로 관개하여 경사지를 이용하여 테라스(terrace) 농법 형태로 전지(田地)를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남부 저지대가 혹독한 가뭄으로 인한 공백기를 거치는 동안 마야의 중심지는 잇싸인의 도래와 더불어 유까딴 반도의 북부의 석회암 지대로 이전하게 되었다. 동 지역은 석회암층 함몰에 의해 형성된 연못인 '세노테'(Cenote)를 가지고 있었지만 산악 경사지가 아닌 평지에 자리 잡은 이후에는 경사지를 이용한 저수지나 빗물을 이용한 테라스) 농법의 운용이 곤란해졌고 물 부족은 더욱 심화 되었고, 따라서 식량 부족 사태는 해결되지 못하였다.

화산 폭발시기에 이르기까지 1,500년간 한 지역에서 14개의 문화층을 보유하고 있었던 '호야 데 세렌'의 경우 화전 농법이 아닌 다른 농법으로 장기간 도시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 유적지에서는 수로의 개설 등 수리 농업의 흔적도 발견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대규모 노동력 단위가 필요했던 사례는 여러 군데서 알 수 있다. 고전기 마야의 중심지인 빨렝께는 지하 수로가 발달해 있었으며 특히 여압 장치를 이용한 상수도 장치는 빨렝께의 수리 시설이 매우 발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과테말라의 마야 중심지 빼뗀의 띠깔 지역에서는 표고차를 이용한 대형 저수지 10여개소가 발견 되었는데 이들은 등위상(等位上)으로 볼때 청정수를 보관하는 제1군 저수지 그리고 사용 여부에 따라 제2군 및 제3군의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었고, 이 저수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우천 시 도시에 흘러드는 빗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도시의 바닥과 건물의 벽면에 소석회를 발랐고[34], 또 도시의 바닥에도 일정률의 경사를 주어 최대한의 집수가 가능토록 설계되었는데 이 역시 대규모의 노동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러한 노동력을 잘 통제할 수 만 있다면 대한발 같은 가뭄 같은 특별한 기상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마야 사회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식량 부족 상태 따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재생산이 중단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정적 사회 운영의 결과 발생한 급격한 인구 증가는 종래 외부로부터의 위기인 대한발에 봉착하자 몰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즉 대한발과 인구 증가로 인한 거대 도시화가 겹쳐져 급양 체계가 파괴되자 마야 사회의 안정적

34) 석회석을 분쇄하여 생석회(生石灰)를 만들어 불에 구우면 소석회(燒石灰)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방수가 가능한 재료가 된다. 이를 도시의 건물과 도로에 바르고 경사를 내면 빗물이 흘러 저수지에 쉽게 이르게 되는 것이다. 소석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방대한 량의 목재가 필요했는데 이것도 삼림 황폐화를 가속시킨 한 원인이 되었다.

재생산 과정이 무너진 것이다. 고전기 이래, 마야의 부족 간 전쟁은 의례적 행위(금성의 움직임에 따라 농한기에 출정하여 제물을 획득하는 등 과시적인 전쟁 행위)에 불과한 것이었고 패한 도시 공동체라도 지도층만 포로가 될 뿐 그 도시가 멸망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증가가 초래한 식량 부족에서 비롯된 부족 전쟁은 전쟁의 양상을 바꾸었다. '아구아떼까'라는 도시 전체가 불타 멸망한 것을 시초로, '깐꾸엔'에서도 절멸의 흔적이 나타났다. 교역 중심의 파괴라는 사태의 진전은 농업 부문의 재생산 과정뿐만이 아니라 상업 부분의 재생산 과정까지 위협하여 쇠퇴의 과정을 더욱 격화시켰던 것이다. 9세기에 북반구 전체에 걸쳐 발생한 대한발[35]이 위태로운 균형 하에 있던 마야 사회의 재생산 과정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36], 고전기 마야 사회의 중심 지역인 남부 저지대가 급격히 쇠퇴하게 된 것이다. 거대 도시들의 잇단 붕괴, 교역 중심지의 파괴에 이어 대한발에 강타당한 마야 중심 남부 저지대의 뻬뗀 지역은 주민이 떠나게 되었고, 띠깔의 원형을 충실히 따르던 마야의 동쪽 변경 지대 모따구아강가의 꼬빤 역시 과잉 농경에 의한 환경 파괴로 쇠퇴하였다. 우수마신따강 유역의 보남빡과 서북 변경 지역의 또니나 등은 이시기에도 활발히 건축 활동을 영위하였으나 멕시코인들의 도래로 쇠퇴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고지대는 이 시기에 별다른 충격을 받지 않았던 듯이 보이지만 떼오띠우아깐이 소멸된 고전기 중엽 이래 마

35) 폴 마예스키(Paul Mayewski)는 그린란드의 얼음 코아 연구를 통해서 1200년전 마야 대한발의 시기에 암모늄양이 급속히 감소했음을 입증했고(각주 28 참조), 미(美)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팀은 유까딴 반도의 호수 연구를 통해 동 시기 지층에 매장된 달팽이 껍질 속의 산소를 분석해 본 결과 7,000년 래의 대한발이 있었음을 입증해 냈다.

36) 이를 간략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전기 마야 사회는 인구 증가 ⇨ 식량 부족 ⇨ 대한발(9c) ⇨ 공백기 초래 ⇨ 유까딴 북부에서의 재건 ⇨ 식량 부족 ⇨ 2차 공백기 초래(15c) ⇨ 유까딴 동부로 중심 이동(15c 말)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론적 정체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야 중심지에서 일탈한 상태였기에 그 규모는 매우 위축된 상태였던 것 같다.

Ⅳ. 맺는 말

이제까지 고전기 마야 사회의 주거 형태, 집거 양식 그리고 사회적 재생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고전기 말기에 발생한 사회 변동 요인들에 대응하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마야의 주거 양태(住居樣態)및 집거 형태(集居形態)는 A.D. 450년 ~ A.D. 550년간을 지난 후, 총 인구의 증가에 더하여 좌식 계급의 증가에 따른 식량 증산의 필요성 때문에 산의 사면 경작(斜面耕作)이 이루어지는 등, 거의 한계 상황에 직면한 재생산 구조를 유지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2장 3절 참조). 그러나 3장의 논의에서 본 것처럼 마야 지역 전체를 강타한 전체적인 대한발에 따라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마야 사회에 불안정 요인이 커졌고, 그에 따른 갈등의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각 도시들은 2장4절에서 본 것처럼 방어 기능 부가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발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식량 획득을 위한 약탈 전쟁이 발생하여(2장 5절) 교역의 중심지 및 마야의 중심 도시들이 파괴되거나 방기됨으로써 고전기 마야는 종식을 고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최창규, [중남미 고대건축]『멕시코 고대문명-마야문명을 중심으로(1)』.

월간 건축문화 v.82, 1988.03

노버트 쉐나우어 저, 김연홍 역『집(6,000년 인류주거의 역사)』. 서울:다우, 2004

제레드 다이아몬드 著, 강주헌 譯『문명의 붕괴: COLLAPSE』. 김영사, 2009

칼 토베 著, 이응균 외 譯『아즈텍과 마야 신화』. 범우사, 1998

Claude Baudez 외 1 著, 김미선 譯『마야 -잃어버린 도시들』. 시공사, 1995

Leonardo Benevolo 著『윤재희 외 譯 세계 도시사』. 圖書出版 世進社, 1991

Maria Longhena 著, 강대은 譯『멕시코 문명- 마야, 아스테카의 역사와 문화』. 생각의 나무, 2004

Paul Oliver 저, 이왕기 외2 공역『세계의 민속 주택』. 서울:세진사, 1996

Historia de Cultura Latinoamericana. copy本. 1979

Annegrete Hohmann-Vogrin. "Unity in Space and Time - The Maya Architecture" in Nikolai Grube (ed.). *Maya: Devine Kings of the Rain Forest.* Konemann, 2006

Caroline Humphrey, Piers Vitebsky, *Scared Architecture.* Duncan Baird Publishers Ltd., 1997

David Freidel, Linda Schele, Joy Parker (2001) "Maya Cosmos-Three Thousand Years on the Shaman's Path", Perennial.

John S. Henderson. *The World of the Ancient Maya* 2nd Ed. Cornell Univ. Press, 1997

Karl Taube. "The Classic Maya Gods" in Nikolai Grube (ed.). Konemann, 2006

Markus Eberl “Death and Conceptions of the Soul” in Nikolai Grube (ed.). Konemann, 2006

Marilin Masson. “The Dynamics of maturing statehood in postclassic Maya Civilization” in Nikolai Grube (ed.). Konemann, 2006

Marry Eellen Miller. *Maya Art and Architecture*. London : Thames & Hudson, 1999

Peter D. Harrison. “Maya Architecture at Tikal” in Nikolai Grube (ed.). Konemann, 2006

R. J. Sharer with Loa P. Traxler. *The Ancient Maya* sixth ed. Stanford Univ. Press, 2006

Schele, Linda and Freidel, David. *A Forest of Kings: the Untold Story of the Ancient Maya*. New York: Harper Perinial, 1990

Sheets, Payson D. ‘“Cerén, Archaelogy of Ancient Mexico and Central America”. An Encyclopedia, (eds. by Evans,S.T and D.L.Webster), Garland Pub.Inc., N.Y, 2001

Sodi M. Demetrio. *Las Grandes Culturas de Mesoamrica*. D.F. Panorama. 1996

Tedlock, Dennis (1996). *Popol Vuh,* New York; Touchstonebook.

Thompson, E.S.. *Maya History and Religion*. Oklahoma City, 1976

▌논문투고일자: 2009년 11월 1일
▌심사완료일자: 2009년 12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22일